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517-7651 ~ 5 팩스/512-1225

“웬말인가 날 위하여”

내 죄로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 금식(金)과 헌혈(水)로 고난에 동참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월 ~ 토, 새벽 5시 30분

4월 4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고난의 행적을 상고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1층예배실에서 갖는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금 처한 갖가지 위기와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입성(일요일, 막11:1 - 11)
- ② 성전을 두번째 정결케 하심(월요일, 막11:15 - 26)
- ③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화요일, 막11:27 - 12:40)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24:25)
- ⑤ 예수의 발에 두번째 기름을 부음(화요일 저녁, 눅 7:3 - 50, 첫번째는 막14:3 - 9 참조)
- ⑥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화요일 밤, 막14:10 - 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잠수심(목요일 오후, 막 14:12, 31)
- ⑨ 겹새마네에서 체포되심(목요일 밤, 막14:32 - 52)
- ⑩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 - 13)
- ⑪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 14:53 - 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금요일 오전, 눅22:66 - 71)
- ⑬ 빌라도 앞에 서심(서심(금요일 오전 눅23:25)
- ⑭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6 - 12)
- ⑮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금요일 눅23:13 - 25)
- ⑯ 십자가에 달리심(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막 15:16 - 41)
- ⑰ 묻히심(금요일 오후 6시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 15:42 - 47)
- ⑱ 무덤에 머무심(토요일)
- ⑲ 부활하심(일요일 새벽, 막16:1 - 8)

학습 · 세례식

12일(수) I, II부 예배 시
10일(월)에 교육, 11일(화)에 문답
12일(수) I, II부 예배 시에는 학습 · 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0일(월) 오후 7시에 2층 예배실에서, 문답은 11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문의는 새가족부나 교구 담당 목사에게 하면 된다.

사랑의 헌혈

12일(수) 11시와 6시, 두차례

12일(수)에는 수요일 예배 후인 1시와 II부 예배 전 6시, 두차례에 걸쳐 대한 적십자사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을 하기로 했다.

헌혈을 하려면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 이상의 체중을 유지한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며 감기약을 복용 중이거나 혈액비중(빈혈) · 맥박 · 혈압검사에 통과해야 한다. 헌혈하는 사람은 간염을 비롯한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헌혈증서도 받게 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헌혈운동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금식일 선포

14일(금) 해 있는 동안
함경북도 근로자들을 위한 구제한금으로

고난주간 동안 내내 참회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주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14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하며 자기 부인과 절제의 생활을 실천한다.

구제한금위원회(위원장: 이영세 장로)에서는 고난주간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을 함경북도 일원의 근로자들을 위해 국제 선명회를 통해 통일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통일벼 한 가마니는 삼만 삼천원(수송비 포함)이며, 이는 한 가족이 40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금식헌금은 다음 주일(16일) I, II, III부 예배 헌금 시간에 바친다.

특별 금요기도회

14일(금) 오후 8시에 연합으로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연합으로 모여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이날의 설교는 이종윤 목사가 한다. 연합으로 기도회를 가짐에 따라 매주 금요일에 가지는 교구별모임과 다락방 모임을 별도로 가지지 않는다.

다음 주일(16일)은 부활절

부활절 (16일) 새벽예배는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린다.

I, II, III부 예배에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저녁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웨스트민스터 로간 총장 내교 예정

- 오는 23일(주일) 찬양예배 시 설교 -

미국의 명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로간(Samuel Talbot Logan, Jr.)총장 내교가 오는 19일 내한 한다.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의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국내 중요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 이호영 박사와 함께 내한하는 로간 총장은 23일(주일) 찬양예배 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며 24일(월)에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요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게 된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거쳐 에머리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연구한 로간 박사는 1991년부터 웨스트민스터의 총장직에 있다. 로간 박사는 90년 9월에 이종윤 목사의 초청으로 방한하였고, 92년도 4월에는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설교의 현상학」을 강연하기도 하였다.

십자가는 배신입니다. 거절이요 이쁨이며, 부끄러움과 슬픔, 고통과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8년 경,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지 약 15년 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서 전장에 걸쳐 십자가의 효험을 구체적

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참회와 경건으로 지내는 이번 주간을 말씀에 나타난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1.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1:3 - 5).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죄를 위해 부득불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고,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으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 그 은혜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2:19 - 21).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는 삶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3:1 - 3).

눈 앞에 밝히 보도록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효험은 영원한 것임과 동시에 현재적으로도 매우 실제적인 것인데,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 이를 확연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표징으로서 십자가를 증거하되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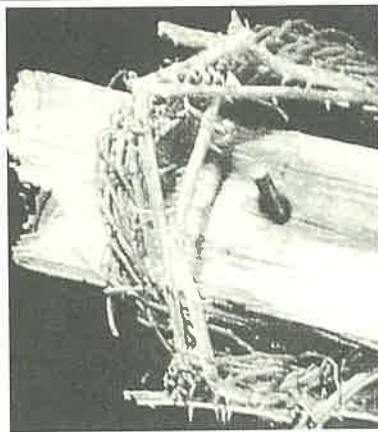
4.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믿게 되었습니다(3:10 - 14).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미치는 저주(신21:29)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십

고난주간 설교

십자가의 효험

이 중 운 목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가 상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5:11 - 12).

십자가로 인한 고난은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마치 거침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인간적인 성취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핍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눅6:26 참조). 그러므로 십자가를 좇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기뻐해야 할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6.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5:24).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자제(self-control)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효험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 자유를 활용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자유는 죄에 대해 죽음과 동시에 옛사람의 성품을 부단히 죽이는 일, 즉 수동적이고도 능동적인 두 측면을 모두 수반합니다.

7.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6:14).

부끄러움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의 대상으로 바

꾸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할례자의 수를 자랑하겠으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요, 구원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칭의(稱義)의 근거입니다.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화(聖化)의 수단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십자가의 도리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증거의 내용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고백한 사도처럼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 순례자 킬링 ✦

빌라도의 재판

악으로 선을 조종하고 불의로 진리를 판단하며, 거짓으로 참을 짓밟는 어둠의 권세자 너 빌라도여! 무너질 로마의 권력이 탐이 나서, 어리석은 군중들의 함성이 무서워서 죄없는 예수를 죽게한 비겁자 너 빌라도여! 진리를 십자가에 못박아 땅 속에 묻어 두고 민중의 환호를 받는 것으로 장한 승리자가 된 줄로 착각한 어리석은 너 빌라도여! 무너진 성전을 사흘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께 모략과 중상과 무서운 죄상을 뒤집어 씌운 채, 탈세한 범법자로 가이사의 반역자로, 사회의 반란자로 십자가 사형틀에 못을 박은 너 빌라도여!

대야에 물을 떠 놓고 손을 씻었다해서 네 죄가 사해질리 없고, 씻어질 수도 없으려만 기련한 빌라도의 춤추는 모습들이 지금도 이 사회 도처에서 재현되고 있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 고난주간의 기도

“고난을 사모하나이다”

그리스도인임에도
고난다운 고난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다운 고난을 사모합니다.

김 세 재 (집사, 찬양대원)

주님,
세상의 덮에 깔려 허우적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제가 있기도 전에 당신은 저를 위하여 피와 살을 부으셨나니
거저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산술이 맞지 않는 모험을 진정 그리하셨나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봅니다.

세상도 더러 고난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 심오함도 비교되지 않을 뿐더러
본질부터 당신의 것과는 궤를 달리하여 얼굴만 붉어질 뿐입니다.
절대적 말씀의 권위를
‘적응과 조화’라는 미명 하에
세상 기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어리석은 야합이 시작되면서
당신의 고난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핑계합니다.
세대가 급변하고
복음전파의 여건이 완전히 달라진 오늘날
당신과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고.
성품의 변화와 삶의 질을 제시하던 당신의 잣대는
팽배해진 개인주의와 거대한 상업주의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고
적당주의와 자기 합리적 상황논리로
세상과 벗하라는 사단의 피리소리는
우리를 계속 무기력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 대신
당신을 따른다는 명목 아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통과 여건의 변화를
고난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또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이 저 자신부터 그러합니다.

주님,
고난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하셨지요.
고난다운 고난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다운 고난을 사모합니다.
이 주간, 당신의 영이
이 불쌍한 영혼과 사랑하는 이웃과 한국교회에
총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 실수로 당하는 고난아닌 고난일찌라도 그것에 간섭하시어
이 죄인의 눈물과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는 교만과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부활의 아침에는 멀리 갔던 자가 돌아오고
쓰러졌던 자가 소생하며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여
고난다운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 아멘 -

■ 간증

고난의 유익 “듣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김 행 익 (집사, 새가족부 교사)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즐겁기만하다면 좋겠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평온하던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치며 배가 뒤집어지기라도 할 때면 아무리 중심을 잘 잡으려 해도 힘든 것이다.

만성신부전증. 하나님께서는 내게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 처음에는 아픔과 고통만 있을 뿐, 십자가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다. 육신의 가시로 밀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치유는 시작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질곡에서 허덕이지만 날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내 대신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연단하시며(욘23:10), 그릇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시119:67)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풍랑을 통해 이전에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욘42:5)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20세기 말의 카타콤 북한의 지하 교회 실상

해방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 하나뿐인 분단국으로 하나되지 못한 아픔과 통일에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50년간의 폐쇄된 공산사회에서도 점조직 형태로 3만 여명의 성도가 있어서, 필사본 성경과 구전 찬송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북한 교회의 실태가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보도되었다(4월 1일자 중앙일보, 1면과 5면). 어쩌다 성경책을 한 권 입수하면 수십명이 돌아가면서 베껴 적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 땅에 묻어놓은 성경을 다시 파내어 보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찬송가는 어른들이 회피한 기억을 더듬어 부르면 한 두곡씩 받아 적어 소리나지 않게 입술만 달싹거리려 찬송한다. 논두렁과 다락방 등에서 2-17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중에는 공산당 간부와 인민군 장성도 있다고 한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과장보도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북한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의 애소(哀訴)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북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믿음으로 부단히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던 평양에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질 날,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동안 잊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광야의 소리

“미혹되지 말자”

- 예수님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망언 -

『성스러운 호소(Divine Appeal)』라는 제명의 책이 “금세기 최대의 사건, 최대의 충격!”이라는 선전 문구와 함께 시중에서 나왔다. 이 책은 최근 로마 근교의 안나 안리라는 수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출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의 한국어판 번역이 나온 것이다. 안리 수녀는 한밤중에 빨간 망토를 입고 푸른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에 검은 눈동자에 긴 머리카락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일이 우리 시대에 가능한 일인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같은 이야기들은 지난 2천 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객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번의 경우도 안리 수녀와 함께 있던 말리 추기경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간에 무

수히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제시되었던 예수님의 얼굴이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산물일 뿐 실상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1:1 - 2)라고 밝히고 있다.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성경 이외의 어떤 새로운 계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의 사역,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20세기 후반에 사는 우리에게 벌여질 이런 일까지 아시고 이미 교훈하지 않으셨던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24:4).

지금은 오로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도적같이 임할 재림의 날을 대망(大望)하며,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도록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천지는 없어진다해도 결코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着念)할 때가 아닌가.

■ 경건과 교양

- 고난주간에 만나볼 고전(古典) -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고백록”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세계적 명작이며 역사적 걸작인 이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F. R. Cruise박사의 서평이 이 책의 설명을 도와줄 것 같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빛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을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에 언급하셨던 제자도 - 겸손,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순결, 온순함, 죄에 대한 비판, 용서, 환난 중에 평화와 즐거움 - 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어느 면을 펴고 읽어도 이 책은 언제나 좋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만큼 책 전체가 거룩하고 고귀한 교훈으로 가득 차있다.

여거스틴의

“고백록”

단순한 ‘고백’ 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이 책은 AD 400년 경에 씌어진 『Confession』을 옮겨 ‘고백록’이라 이름한 것이다. 원어 ‘confiteri’의 성경적 의미를 볼 때 이 작품은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 찬양의 서사시이다.

작가 자신이 책의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림이자 자기 고발인 것이다. 자기를 고백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을 고백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부활의 권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기리는 자가 아니겠는가?”

“말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리지 않는 거기에는 어떠한 죄의 고백도 경건하거나 유익할 수 없다”

“고백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찬양이 그것이다. 전자는 의사에게 상처를 열어보임이요, 후자는 회복된 건강을 감사드림이다.”

이와 같이 역서 『고백록』은 참회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요모한 섭리로써 죄악의 비참함에서 인간을 구원하여주신 것에 대한 영혼의 송가인 것이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③ 4월 10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요한 신학에 나타난 영성(이상훈 박사)
- ④ 4월 17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청교도들의 영성 (원종천 박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주님의 십자가를 목상하며, 회개와 근신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환란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3.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4. 제 6차 킷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